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II

A Study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金秀娟

부교수 金得星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Soo-yun Kim

Associate Prof. : Deuk-sung Kim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FACES II & III did not capture high extreme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and were linear rather than curvilinear mea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FACES using by FACES II, III, IV. Factor analysis showed that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consisted each 3 factors(disengaged, connected, enmeshed / rigid, flexible, chaotic). Extremes on each dimension conceptually were opposite and they were uncorrelated with each other. Revised FACES effectively predicted family function.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ubscales ranged from .68~.82. Revised FACES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construct and criterion related validity.

I. 문제의 제기

체계이론이 가족학에 도입된 이래 많은 학자들은 가족의 역동성을 다루고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기

능을 일차원적인 속성으로 설명하던 입장과는 달리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족의 복합적인 기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건강한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을 査定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가족기능을 개념화하고 査定하는 모델은 특히 가족학 연구 분야와 가족치료 임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임상 분야에서 가족査定 모델은 가족 자신의 내부자 관점과 임상가의 외부자 관점을 통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역동성을 포착하여 치료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가족 이론 분야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실제 치료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1970년 후반부터 가족査定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모델은 McMaster 모델(Epstein, Bishop & Levin, 1978), 가족환경 모델(Family Environmental Scale; Moos & Moos, 1981), Beavers 체계 모델(Beavers & Voeller, 1983), 순환모델(Circumplex Model;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등이 있다. 이들 모델은 모두 가족체계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가족기능을 다루는 구성개념들도 유사하다. 그러나 몇몇 가족기능 모델은 실제로 가족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척도의 문항수가 100문항을 넘어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점수를 부호화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Olson의 순환모델은 척도의 구성과 해석방법이 간단하여 측정이 경제적이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모델 중의 하나이다.

Olson 등(1983)은 가족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응집과 적응을 설정하고, 두 개념을 주축으로 순환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개념들은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학자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많은 가족학 관련 저서에서 순환모델이 소개되고 있고, 가족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및 의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순환모델에 관련된 논문이 국내외 삼백여편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순환모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모델은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모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입증의 실패이다. 즉 과다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응집과 적응을 지닌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보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원인이 자기보고식 척도인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이하 FACES로 칭함)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FACES II와 FACES III는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응집과 적응의 극도로 과다한 차원(매몰, 혼돈)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FACES II의 선형성은 기능적인 가족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점과 FACES III보다 신뢰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높다(Hampson 외, 1991)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FACES IV는 FACES III의 단점을 보완한 척도로 응집과 적응 각 차원의 극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각 차원의 양 극단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양 극단이 단일 차원이라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곡선성 검증이 불가능한 단점을 안고 있다.

순환모델의 척도와 관련된 문제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순환모델의 양극단을 측정하여 순환모델의 곡선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한국가족 문화에 적합하도록 척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김수연·김득성(1997)은 FACES II, III, IV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순환모델의 각 차원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고, 차원의 각 하위 수준이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하나의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 순환모델의 곡선성 검증이 가능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또한 연결 수준이 높은 한국 가족문화에 따라 일부 매몰 문항이 연결로 해석됨을 밝혔다. 그러나 재구성한 척도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문항분석에서 손실된 문항들이 많아 하위 척도의 문항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예- 우리의 경우 3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문항수가 적을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며, 하위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석에서 제외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하위 척도의 문항 수가 충분히 확보된 척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아내와 자녀만을 대상으로하여 남편이 제외되었고 따라서 가족전체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표준자료가 될만큼 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도 있다. 세번째는 일반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상가족을 통한 임상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각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고, 보다 풍부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표준자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척도구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재구성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는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구성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응집과 적응의 각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한국 가족에 적합하도록 재표준화하는데 있다. 즉 응집과 적응의 각 수준(과소한 극단수준, 적절한 수준, 과도한 극단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하위 척도의 문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재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순환모델과 순환모델을 사정하는 척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김수연·김득성(1997)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부부와 청소년 자녀로 표집들은 부산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이다. 가족원마다 가족을 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가족원 가운데 부부와 해당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반가족을 표집하기 위해서 먼저 부산시 16개구 가운데 10개구를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5개의 중학교

와 5개의 고등학교를 표집 하였으며 이때 여학생과 남학생을 동일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1997년 4월 29일에서 5월 7일까지 선정된 각 학교에서 한 학급씩 총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500가족의 부모와 자녀(총 1500명)를 조사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55 가족(1037명)이었다.

자녀의 경우 문자해독력이 없거나 문자해독력이 있다하더라도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힘든 학동기 이하의 자녀는 연구 대상으로 삼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로 대상을 한정시켰다.

임상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제가족을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문제가족은 가족기능을 저해하는 문제 행동¹⁾을 하는 가족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이들 사례를 찾기 위해 표집된 일반가족 중 문제행동 척도에서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한 경우 문제가족으로 분류하였다(문제행동 가족이라고 명명함). 그런데 부부의 경우(특히 남편) 알콜 중독 한 문항에만 응답을 한 경우 음주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문제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알콜 중독과 다른 문제 행동이 결부되어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가족이라고 보았다. 자녀의 경우에 이성과의 혼숙의 한 문항에만 응답을 한 경우에도 자녀의 숙박을 겸한 행사시 혼숙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혼숙이 이성과의 성경험이나 가출과 병행해서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행동으로 보았다. 대개의 문제행동은 한가지 행동만 단독으로 발생되지 않았고 두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0가족 중 48가족(80%)이 2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임). 아울러 일반가족 중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자녀의 역기능적 행동가운데 청소년 비행을 문제행동으로 보고, 청소년 비행의 정의에 따라 소년원 재소자를 의도적 표집하였다(청소년 비행 가족이라고 명명함). 재소자 1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그 가운데 가족이 현재 없거나 무성의한

1) 부부의 문제 행동: 알콜 중독, 도박, 외도, 폭행, 가출, 자살시도

자녀의 문제 행동: 성경험, 이성과의 혼숙, 폭행, 약물복용, 가출, 자살시도

응답을 제외시키고 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가족의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2%,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3%, 100~150만원 미만이 20%, 150~200만원미만이 25%, 200~250만원 미만이 19%, 250만원~300만원이 12%,

300~400만원이 10%, 400만원 이상이 10%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소규모 자영업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기술직 20%, 그리고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각각 18%순이었다. 아내는 전업 주부가 63%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소규모 자영업 11%와 서비스직 7%, 사무직 5%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초등졸이 5%, 중졸이 12%, 고졸이 46%, 대졸이 27%, 대학원졸이 8%이었다. 아내의 경우 초등졸이 5%, 중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총 1123명)

종 류		대 상	조사대상 가족	사례수
정상가족	일반가족	문제가 없는 일반가족	남편, 아내, 자녀	295가족 (859명)
		문제행동을 가진 가족	남편, 아내, 자녀	60가족 (178명)
문제가족	문제가족	청소년 비행 가족 (소년원 재소자) (의도적 표집)	자녀 (재소자 본인)	86명

〈표 2〉 일반가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남 편	아 내	변 인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백분율)				
연령	30~40세 미만	55(14)	193(48)	수입	50만원 미만	5(2)
	40~50세 미만	306(78)	206(51)		50~100만원 미만	12(3)
	50~60세 이상	33(8)	2(1)		100~150만원 미만	83(21)
직업	무직, 주부	7(2)	258(64)		150~200만원 미만	97(25)
	임시고용, 노무직	16(4)	12(3)		200~250만원 미만	70(18)
	판매/서비스직	21(5)	28(7)		250~300만원 미만	48(12)
	숙련,기능/생산직	80(20)	17(4)		300~400만원 미만	35(9)
	소규모 자영업	86(22)	47(12)	400 이상	44(11)	
	일반 사무직	74(19)	10(3)	결혼 상태	아내 초혼 + 남편 초혼	381(96)
	일반 전문기술직	66(17)	19(5)		아내 초혼 + 남편 재혼	5(1)
	고위 전문직	44(11)	11(3)		아내 재혼 + 남편 초혼	2(0.5)
기타	39(11)	2(1)	아내 재혼 + 남편 재혼		2(0.5)	
			아내 혼자임(편모)		4(1)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19(5)	22(6)	남편 혼자임(편부)	4(1)	
	중 졸	48(12)	80(20)			
	고 졸	178(45)	206(52)			
	대 졸	121(31)	75(19)			
	대학원졸	27(7)	11(4)			

졸이 21%, 고졸이 52%, 대졸이 19%, 대학원졸이 3%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간 계층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4세, 아내가 41세, 자녀가 14세이었다. 결혼 상태는 초혼의 경우가 97%이었다.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확대기 가족에 해당된다.

청소년 비행 가족에서 자녀인 재소자의 평균 연령은 17세이어서 일반가족의 자녀 연령보다 높았다. 재소자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나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58%) 그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29%)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의 경우가 절반 수준(52%)으로 일반가족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편부모 가족이 29%, 계부모 가족이 12%였다.

및 적응 평가 척도(FACES) 시리즈 가운데 FACES II의 30문항, FACES III의 20문항, FACES IV의 40문항을 재구성한 김수연·김득성(1997)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FACES II, III의 질문지들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연구마다 유사하게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연구자 나름대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각 연구마다 FACES 척도를 번역한 문항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FACES 원안과 가장 근접한 번역을 하기 위해 영어 영문학 전공 석사 소지자 2인에게 문항 번역을 검토 받았으며, 김수연·김득성(1997)의 연구에서 제외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기준은 다음과

<표 3> 청소년 비행 가족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사례수(백분율)	변 인	구 분	사례수(백분율)
범죄 내용	유해화학	8(10)	교육 수준	무 학	4(5)
	절도미수	2(2)		초 등 졸	4(5)
	절 도	8(10)		중학교 중퇴	38(46)
	특수절도	7(9)		중 졸	10(12)
	금품갈취	1(1)		고등학교 중퇴	25(29)
	폭 력	25(29)		고 졸	2(2)
	강도상해	2(2)	부모의 결혼 상태	친어머니+친아버지	42(52)
	특수강도	5(6)		친어머니+계부	6(7)
	강간치상	2(2)		계모+친아버지	9(11)
	특수강간	3(3)		계모+계부	1(1)
	주거침입	2(2)		편 모	11(14)
	무 용 답	25(29)		편 부	12(15)

3. 측정도구

질문지는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과 새로 구성된 가족 응집 및 적응 척도, Barnes와 Olson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부 의사소통 척도, 가족화목 척도,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1) 가족 응집 및 적응 척도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는 Olson의 가족 응집

같다.

첫째, 김수연·김득성(1997)의 결과에서 매몰 문항 가운데 연결 문항이라고 밝혀진 문항들은 더욱 매몰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그 이유는 적절한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 극단 문항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극단 문항으로 수정하려는 의도 때문이다.²⁾ 둘째, 하위 수준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문항이 되도록 보완하였다.³⁾ 셋째, FACES 원안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 수정을 하였다.⁴⁾

2) 수정한 예) 가족 중 한 사람이 불안해 지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된다.

문항들은 응집과 적응의 수준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Olson의 분류대로 응집과 적응의 차운데 응집과 적응의 정도가 극도로 과소한 수준(유리, 경직), 적절한 수준(연결, 융통), 극도로 과다한 수준(매몰, 혼돈)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집에서 유리 6문항, 연결 8문항, 매몰 14문항을 추출하였고 적응에서는 경직 11문항, 융통 7문항, 혼돈 8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리커트식이다.

2) 의사소통 척도

부부의 의사소통 척도는 김수연(1993)의 부부 의사소통 척도 가운데 적극적이고 명료한 의사소통, 수용적인 배우자의 태도, 감압적·지배적 의사소통, 불안·회피적인 의사소통의 네개 요인을 골라 2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alpha=.88$ 이었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정유미(1997)와 정현숙·서동인(1996)이 변안한 것을 참고로 하여 사용하였다. 부부는 부모용 의사소통 척도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는 자녀용 의사소통 척도 40문항(부부용과 내용은 같으나 부모 각각에게 질문)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 결과 남편의 경우가 $\alpha=.83$, 아내의 경우가 $\alpha=.84$, 자녀의 경우 $\alpha=.85$ 이었다.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3) 가족화목 척도

이 척도는 Kinnair와 Gerrard(1986)의 가족분위기 척도(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의 경우 父와 母의 관계, 자녀와 父 母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 정도의 5문항이다. 부모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에 대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화목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alpha=.82$ 이고, 어머니의 경우 $\alpha=.80$ 이며, 자녀는 $\alpha=.84$ 이었다.

4)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부부용과 자녀용으로 나뉘며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의 문제 행동 문항은 유순덕(1987)과 권윤아(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알콜 중독, 폭행, 외도, 도박, 자살 시도 및 가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범주는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이다.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는 유순덕(1987), 정유미(1997), 권윤아(1997)의 연구를 참고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문제행동 척도는 성 경험, 이성과의 혼숙, 약물남용, 폭행, 가출 및 자살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문제행동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문제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 가족 중 한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3) 수정한 예)

(연결)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가깝게 느낀다.

→ 우리 가족은 가깝지만 각자가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혼돈)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

→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

(경직) 우리는 일을 잘못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다.

→ 우리는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사정이야 어쩔든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가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다.

4) 수정한 예)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서로 알고 있다.

→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좋은 친구로 인정한다.

〈표 4〉 FACES 척도 중 상이하게 번역된 문항들

연구자	번역
FACES II FACES III 김진희(1988) 민하영(1992) 최연실(1996), 본연구	Family members know each other's close friends. We approve of each other's friends.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알고 있다. 우리 식구는 각자의 친구를 좋은 친구로 인정한다. /
FACES II 김진희, 홍성애(1988) 민하영 본연구	Family members avoid each other at home.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함께 있기를 꺼린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어색해지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서로 대하기 싫어한다.
FACES II 민하영 김진희, 홍성애 본 연구	Family members go along with what the family decides to do. 수돗물이나 전기를 아껴쓰자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서로가 이를 지키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가족이 내린 결정을 잘 따른다. /
FACES II FACES III 최연실, 김진희 본 연구	Family members are supportive of each other during difficult time. Family members ask each other for help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다.
FACES III 최연실 전귀연(1993) 본 연구	We can easily think of things to do together as a family. 우리 식구는 한 가족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우리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여가생활, 취미활동)이나 이야기거리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FACES III FACES IV 최연실, 전귀연 본 연구	It is hard to identify the leaders in our family. There is a lack of leadership in our family.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가족을 이끄는 사람(주도적인 역할)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
FACES III 최연실 전귀연 본연구	Our family changes its way of handling tasks. 우리 식구는 늘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우리 가족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우리 가족은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FACES II, III FACES IV 최연실 전귀연 본 연구	Rules change in our family. It is hard to know what the rules are in our family. 우리 가족내에서는 규칙이 잘 바뀐다. 우리 집에서는 규칙이 바뀔 수 있다. 우리 가족은 가족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4. 분석방법

1)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의 문항들을 내용에 따라 세가지 하위 수준(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극도로 과다한 수준)으로 나누었다.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문항과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r = .20$ 이하인 문항은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2)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응집과 적응 척도가 이론적으로 각각 세 하위 수준으로 구성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수준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응집과 적응 척도의 양 극단의 두 수준은 상반된 수준이며 다른 성질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과 극단 수준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 ② 응집 및 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통해 기준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의사소통과 가족화목은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응집과 적응이 적절한 수준(연결, 융통)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응집과 적응이 극도로 과소한 수준(유리, 경직)과 극도로 과다한 수준(매물, 혼돈)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검증을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③ 임상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상가족과 문제 가족에 따른 응집과 적응을 일원변량 분석하고 추후검증 하였다. 즉 문제가족은 정상가족보다

적절한 수준의 값이 낮고, 극단 수준의 값은 높아야 한다.

3) 최종적으로 구성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를 위해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로 Cronbach의 α 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문항 양호도

1) 응집

응집에 해당하는 문항을 내용에 따라 유리, 연결, 매물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여 문항분석을 하였다. 유리의 14번, 연결의 5번, 매물의 4번과 13번 문항은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과 상관계수는 구체적으로 <표 5>와 같다.

2) 적응

적응에 속하는 문항을 경직, 융통, 혼돈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여 문항분석을 하였다. 경직의 33번, 37번, 51번과 혼돈의 36번 문항이 제외되었다.

2. 구성타당도

1) 요인분석

문항 양호도 검증을 거쳐 추출된 문항들이 응집과 적응의 세가지 수준을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절차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 회전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표 5> 응집의 문항분석

문항	문 항 내 용	문항-척도간 상관관계
4번	우리 가족은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15
5번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다.	.16
13번	우리 가족은 가족외의 다른 친구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17
14번	우리 가족은 각자 매우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01

〈표 6〉 적응의 문항분석

문항	문항 내용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33번	우리 가족은 생활방식을 전혀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다.	.14
36번	우리 가족은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19
37번	우리 가족에서 정해진 규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13
51번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13

1.0이상인 요인수와 scree-test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응집과 적응은 세계의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응집

응집의 세 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8.2%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1.5%를 설명하였고, 매몰에 해당하는 4문항과 연결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1.4%를 설명하며, 모두 매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유리에 해당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3%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의 연결에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6번),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낸다」(24번), 「우리 가족은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다」(25번),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8번)의 네문항은 FACESⅣ에서 매몰에 속하는 문항들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문화에서는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항은 매몰보다는 연결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응집은 유리 5문항, 연결 11문항, 매몰 8문항의 세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② 적응

적응에서 세계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43.8%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4.8%를 설명하며, 모두 융통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2.3%

를 설명하며, 모두 혼돈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6.8%를 설명하며, 모두 경직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요인분석 결과 적응은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직 8문항, 융통 7문항, 혼돈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 상관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응집 및 적응의 하위 수준이 변별력있게 구분될 수 있는가와 응집과 적응 차원의 직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응집과 적응 차원은 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극도로 과다한 수준의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응집의 경우 유리와 매몰은 한 차원의 양 끝이고 연결은 그 중간에 위치하므로 이들 하위 수준간에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기능적인 수준인 연결은 역기능적인 수준인 유리, 매몰과 부적인 상관이 존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극단 수준인 유리와 매몰은 상호 상반된 수준으로 전혀 다른 역동성을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상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두 극단의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 9〉에서 응집의 경우 유리-연결, 연결-매몰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유리-매몰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적응에서도 융통-경직, 융통-혼돈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존재하였으며 경직-혼돈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응집에서 유리와 매몰 그리고 적응에서 경직과 혼돈 양 극단 수준간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표 7〉 응집의 요인 행렬표

문항	요인 1 연결	요인 2 매물	요인 3 유리
20 우리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낸다.	.74	.01	.02
9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73	-.06	.08
21 우리 가족은 행사가 있을 때 모두 모이는 편이다.	.72	-.11	-.09
*25 우리 가족은 지나치게 친밀하다.	.71	.13	-.00
16 우리 가족은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가족과 상의한다.	.65	-.06	.10
*6 가족 중 한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3	.38	-.14
*28 우리 가족은 가족이 내린 결정을 잘 따른다.	.62	-.25	.09
1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9	-.23	-.04
*24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지만 각자의 사생활과 개인성을 존중해 준다.	.58	-.24	-.19
12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고 친밀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좋은 친구로 인정한다.	.55	.16	.11
2 우리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13	.68	.00
27 우리 가족은 지나치게 서로 매여있는 것 같다.	-.03	.65	-.10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25	.61	-.06
23 우리 가족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49	.57	.04
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너무 의지한다.	.18	.53	.01
26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든다.	.12	.50	-.30
7 가족 중 한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26	.47	-.28
10 우리는 가족이 가족외의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 속이 상한다.	.06	.45	.06
11 우리 가족은 집에서 서로 대하기 싫어한다.	-.32	.01	.64
19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보다 가족외의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더 편하다.	.05	-.01	.60
3 가족이 함께 있을 때조차도 거의 친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07	-.11	.56
22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쓴다.	-.11	-.02	.53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낸다.	.10	-.12	.51
고 유 치	5.2	2.7	1.3
변량 백분율	21.5	11.4	5.3

*는 매물 문항이었으나 연결 요인으로 묶인 것.

양 극단 수준은 상호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동시에 척도의 판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응집과 적응의 양 극단의 하위 수준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적절한 수준을 매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응집과 적응은 하나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

며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응집과 적응의 직교 검증 결과에서는 유리-경직, 유리-혼돈, 연결-유통, 매물-경직, 매물-혼돈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유리-유통, 연결-경직, 연결-혼돈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상관의 방향을 보면 응집과 적응의 적절한 수준간의 상관과

〈표 8〉 적응의 요인 행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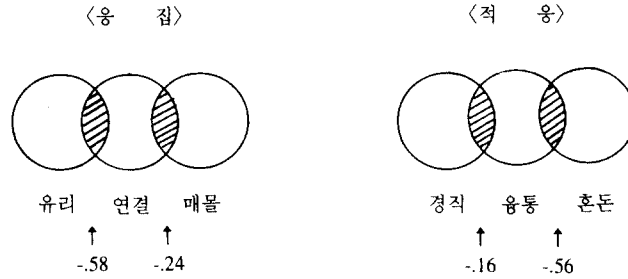
문	항	요인 1 응통	요인 2 혼돈	요인 3 경직
31	자녀의 훈육에 대해 자녀들도 의견을 제시한다	.74	-.17	-.04
30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73	-.14	-.12
49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1	-.15	-.16
34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65	-.20	-.07
45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된 해결책에 만족한다	.63	-.37	-.06
39	우리 가족의 규칙은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58	-.17	-.01
42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47	-.14	.07
41	우리 가족은 전혀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	-.15	.68	.05
53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	-.15	.64	.21
43	우리 가족에서는 집안일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06	.62	-.02
44	가족문제에 대해 논쟁을 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27	.62	.18
54	우리 가족에서는 되는일이 없다.	-.29	.61	.16
48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칭찬과 벌이 분명치 않다.	-.19	.58	-.01
29	우리 가족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10	.47	-.20
52	우리 가족은 너무 조직적이고 딱딱하다	-.16	.21	.64
35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오직 한가지 뿐이다.	-.09	.15	.63
40	우리 가족에서는 규칙을 어겼을 때 엄한 벌이 따른다.	-.02	-.27	.61
38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10	-.27	.61
47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다.	-.19	.20	.57
50	한 번 계획한 것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	-.01	.11	.55
46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28	-.04	.54
32	우리 가족에서는 한 사람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다.	-.29	.04	.45
고 유 치		5.5	2.7	1.5
변량 백분율		24.8	12.3	6.8

〈표 9〉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 상관계수

	유리	연결	매물	경직	응통	혼돈
유리	1.00					
연결	-.58***	1.00				
매물	-.00	-.23**	1.00			
경직	.34**	-.11**	.33**	1.00		
응통	-.39	.63**	.06	-.16**	1.00	
혼돈	.45**	-.35**	.12**	.09	-.56**	1.00

** P < .001

극단 수준간의 상관은 정적이었고, 적절한 수준과 극단 수준간의 상관은 부적이었다. Tiesel(1994)의 연구에서도 유리-혼돈($r=.51$), 매물-경직(.49), 매물-혼돈(.34)간에 정적 상관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혼돈-경직(.06), 유리-매물(-.07), 유리-경직(.02)에서는 비록 유의한 수준이긴 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여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리-경직(.34)간에 상관이 있었다.



<그림> 응집과 적응 차원의 하위 수준간의 관계

3. 기준관련 타당도

1) 응집 및 적응의 하위 수준과 가족기능과의 상관분석

<표 10>에서 가족기능과의 관련을 보면 기대했던 대로 극단 수준은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적절한 수준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극단 수준 가운데 유리, 경직, 혼돈은 가족화목 및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매물은 가족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매물은 이론상 역기능적인 가족으로서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관분석 결과 매물은 가족기능과 관계가 없었다. 응집에서는 유리와 연결이, 적응에서는 모든 수준(경직, 융통, 혼돈)이 가족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표 10> 응집 및 적응 하위 수준과 가족기능간의 상관계수

	가족화목	의사소통
유리	-.55*	-.54*
연결	.57*	.70*
매물	-.06	-.08
경직	-.24*	-.20*
융통	.55*	.76*
혼돈	-.51*	-.59*

* P < .001

극단 수준의 경향은 Tiesel(1994)과 김수연·김득성(1997)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비록 Tiesel

의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매물과 경직의 상관(-.11~-.16)은 매우 약했고, 김수연·김득성(1997)의 결과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Tiesel(1994)과 김수연·김득성(1997)의 결과에서 유리와 혼돈은 의사소통 및 가족화목과 뚜렷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에 따른 응집 및 적응

① 응집

응집의 경우 유리에서는 청소년 비행 가족이 가장 유리되었고 다음으로 문제행동 가족, 정상가족 순이었다. 연결에서는 정상가족이 가장 연결 수준이 높았고 청소년 비행 가족, 문제행동 가족 순으로 낮아졌다. 매물에서는 문제행동 가족과 청소년 비행 가족의 매물 수준이 높았고, 정상가족의 매물 수준이 낮았다.

<표 11>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에 따른 응집

(평균/ scheffé)

가족의 종류	유 리	연 결	매 물
· 정상가족	9.6 a	41.2 a	18.8 a
· 문제행동 가족	11.2 b	36.7 b	20.6 b
· 청소년 비행 가족	12.8 c	38.1 c	19.9 b
F값	42.6*	56.3*	4.9*

* P < .0001

② 적응

적응의 경우 경직에서는 문제행동 가족과 청소년 비행 가족의 경직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가족은 경직 수준이 낮았다. 융통에서는 정상가족이 가장 융통 수

준이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행동 가족, 청소년 비행 가족 순으로 낮아졌다. 혼돈에서는 청소년 비행 가족이 가장 혼돈되었고 다음으로 문제행동 가족, 정상가족 순으로 혼돈 수준이 낮아졌다.

〈표 12〉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에 따른 적응
(평균/Scheffé)

가족의 종류	경 직	응 통	혼 돈
· 정상가족	17.3 a	26.6 a	14.5 a
· 문제행동 가족	19.7 b	23.4 b	17.3 b
· 청소년 비행 가족	19.4 b	22.7 c	19.1 c
F값	6.1*	43.7*	53.6*

* P < .0001

4. 신뢰도 검사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응집의 경우 유리 $\alpha=.81$, 연결 $\alpha=.78$, 매물 $\alpha=.68$ 이었으며, 적응의 경우 경직 $\alpha=.68$, 응통 $\alpha=.82$, 혼돈 $\alpha=.76$ 이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응집과 적응의 모든 하위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나아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집은 유리, 연결, 매물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결 요인에는 이론적으로 매물에 해당되는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적응은 경직, 응통, 혼돈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척도는 응집의 경우 유리 5문항, 연결 11문항, 매물 8문항이었고, 적응의 경우 경직 8문항, 응통 7문항, 혼돈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응집과 적응의 차원은 적당한 수준을 매개로 양 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 차원에서 극

단 수준은 서로 상관이 없었으며 이는 척도의 극단 판별 능력을 나타낸다. 아울러 응집과 적응의 직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응집의 유리와 연결, 적응의 경직, 응통, 혼돈은 가족기능과 상관이 있었다. 즉 극단 수준보다 적절한 수준의 가족이 기능적이었다. 또한 응집과 적응은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는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최종 구성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는 순환모델 이론에 부합되는 구성개념을 가졌으며, 높은 신뢰도와 기준 관련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따라서 새로 보완된 척도는 기존 척도의 단점을 극복한 진일보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순환모델이 가족학 뿐 아니라 교육학, 사회복지학, 의학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자기보고식 척도가 학문에 이바지하는 공헌도는 크리라고 예상된다.

이 척도 구성의 중요한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문화에 맞게 개발된 척도를 한국 문화에 적용시켜 우리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연결 요인에 포함된 4개의 매물 문항은 압박감이나 개인성 발달의 억압같은 역기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족에서는 가족간의 단란함, 친밀함, 여가시간의 공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등이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가족간의 친밀함이나 돈독한 유대, 일체감을 나타내며 동시에 우리나라 가족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응집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김수연·김득성(1997)의 결과와 문항의 구성이 다른 이유는 연결 요인에 해당되었던 매물 문항을 더욱 매물된 것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김수연·김득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매물에 해당된 문항이었으나 연결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연결로 다루어져야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되었다.

둘째, 순환모델의 곡선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재구성된 척도는 순환모델을 이루는 차원의 하위 수준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집과 적응은 각각 하나의 차원임을 확인하였다. Tiesel(1994)은 양 극단만을 측정할 수 있는 FACES IV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 극단이 한 차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곡선성 검증이 어려웠다. 김수연·김득성(1997)의 연구에서는 경직과 융통간의 상관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의 관계가 고리 모양의 분명한 상관을 보였다. 단일 차원 여부의 확인은 곡선성 검증 이전에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Tiesel, 1994)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응집과 적응의 곡선성 검증을 위한 충분 조건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하위 척도의 문항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뢰도 검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전의 척도보다 극단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넷째, 문제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척도의 임상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명확하게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는 순환모델의 곡선성 검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윤아,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 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2) 김수연,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 김수연·김득성, 가족의 응집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1997.
- 4) 김진희,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5)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1992.
- 6)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 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7) 정유미,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실업계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8) 정현숙, 서동인,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 환경 및 사회, 심리적 적응,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회, 늘어나는 편부모, 96가정복지 세미나, 1996.
- 9) 전귀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 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10) 최연실, 가족 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1996.
- 11) 홍성애,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Barnes, H.L., &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1985.
- 13) Beavers, W.R., & Voeller, M.N., Family model: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1983.
- 14) Beavers, W.R., & Hampson, R.B., *Successful Families*. Norton & Company, 1990.
- 15) Epstein, N.B., Bishop, D.S., & Levin, S., The McMaster model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Marriage & Family counselling* 4, 19-31, 1978.
- 16) Foley, V.D., 이형득, 김선남, 설기문 역, 가족치료 입문, 서울: 형설출판사, 1988.
- 17) Galvin, K.M., & Brommel, B.J.,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 2nd Edition. Scott: Foresman & Company, 1986.
- 18) Hampson, R.B., Hulgus, Y.F. & Beavers, W.R.,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Beavers system model and Olson's Circumplex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326-340, 1991.
- 19) Kinnard, K.L., & Gerrard, M.,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757-765, 1986.
- 20) Lee, C.,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1988.
- 21)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 Keitner, G.I.,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1985.
- 22) Minuchin, S.,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23) Moos, R., & Moos, B.,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1.
- 24) Olson, D.H.,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 471-478, 1994.
- 25) Olson, D.H., Porter, J., Lavee, Y.,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1985.
- 26)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1983.
- 27) Perosa, Z.M., & Perosa, S.L., The use of bipolar item format for FACES III.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187-199, 1990.
- 28) Pratt, D.M., & Hansen, J.C., A Test of the curvilinear hypothesis with FACES II & FACES III.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 387-392, 1987.
- 29) Tiesel, J.W., Capturing family dynamic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CES IV.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1994.